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의 역할 — 중국의 사례

양세욱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1. 중국어의 언어 접촉

문학과 역사·철학·언어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근대 중국의 인문학자 왕국유(王國維, 1877~1927)는 1905년에 발표한 〈'신학어(新學語)'의 유입을 논함〉에서 “근년에 문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신어(新語)'의 유입이다.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다. 새로운 사상의 유입은 새로운 언어의 유입을 의미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 글에서 '신학어' 또는 '신어'가 가리키는 것은 번역을 통해 소개된 근대어이다. 전통 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가 태동하는 전환기의 중심을 살았던 지식인 왕국유는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전통 시대의 언어에서 근대어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든 언어는 언어 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류한다. 중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어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에 가깝지만 고립된 언어(isolated language)는 아니다. 중국어가 주변 언어에 미친 영향에 비해 주변 언어가 중국어에 미친 영향은 늘 간과되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중국어도 끊임없이 주변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마오어·야오어·문어·크메르어·타이어 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서역의 언어인

인도·이란어족과 인도·유럽어족, 흉노·선비·몽고·만주어 등 알타이 어족에서 받아들인 많은 차용어들이 그 증거이다. 특히 불교의 동전(東傳)과 함께 대규모로 유입된 산스크리트어 차용어의 영향력은 컸다.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어로 유입되는 차용어의 양상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이 한자로 번역되어 중국어에 유입되었다. 또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의 난학자들이 만들어 낸 번역어들과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어 어휘들은 상당수가 한자를 매개로 중국어로 유입되었다. 중국어의 역사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규모로 유입된 이 번역어들은 중국어 어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나아가 중국 근대어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근대 중국의 번역과 번역어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은 중국과 일본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근대 번역어의 생산은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입국과 함께 명 말의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남만학(南蠻學)·난학(蘭學)·영학(英學)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양학(洋學) 열풍 속에서 유래 없이 많은 번역어들이 만들어졌다.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 번역어들은 한자와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어휘 체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근대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서양이 원산지인 근대 번역어들이 중개지인 중국과 일본을 거쳐 수용지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중국의 근대 번역어

중국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근대 번역어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 단계는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입국한 1582년부터 예수회가 해산된 1773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을 주도하였다. 제2 단계는 백년금교(百年禁敎)가 해제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과 사전 편찬에 종사했던 19세기 초반이다. 제3 단계는 임칙서(林則徐)·위원(魏源)·서계여(徐繼畬) 등 이른바 경세파(經世派) 학자들이 서양의 사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던 19세기 중반이다. 마지막 제4 단계는 엄복(嚴復)·마건충(馬建忠) 등 서양의 언어와 학문에 정통한 일군의 학자들이 서양의 책들을 직접 중국어로 번역한 시기로, 대략 청일 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운동 때까지이다.

유럽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은 명 말에 처음 시작되었다. 중국어와 유럽어 사이의 최초의 언어 접촉으로 기록될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 이름은 리마두利瑪竇, 1552~1610)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Jesuits)이었다.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 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가톨릭의 혁신을 위해 탄생된 예수회(Society of Jesus)는 1540년 이냐시오 데 로욀라(Ignacio de Loyola, 1491~1556) 등의 주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가톨릭의 남자 수도회이다. 1552년 이탈리아 마체라타에서 태어나 1571년 예수회 수사가 된 마테오 리치는 1582년 선교를 위해 마카오에 도착하여 1610년 베이징에서 사망할 때까지 28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였다. 리치는 선교사였을 뿐 아니라 수학·천문학·지리학·기역술 등 여러 학문에 밝았던 박람강기(博覽強記)의 대학자였다. 리치가 선교사로서, 학자로서 중국에서 거두었던 성공의 배경에는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 1595년에 쓴 편지에서 리치는 중국어와 한문의 구사 능력이 이미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를 초월했다면서 “이탈리아 글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 쓸 용기가 없다.”라고 고백한 바도 있다. 리치는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천주실의(天主實義)》·《교우론(交友論)》·《이십오언(二十五言)》·《기인십편(畸人十篇)》 등을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리치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벗 서광계(徐光啓, 1562~1633)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Element of Geometry)》의 일부를 《기하원본(幾何原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또 이지조(李之藻, 1565~1630)와 함께 《동문산지(同文算指)》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서양 학자가 입으로 구술하면, 중국 학자가 붓으로 받아 적는(西士口授, 中士筆受)” 협업을 통해 유럽에서 건너온 생소한 개념들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다. ‘geometry’의 ‘geo’를 음역한 ‘기하(幾何)’를 비롯하여 ‘직선(直線)·곡선(曲線)·대각(對角)·직각(直角)·둔각(鈍角)·삼각(三角)·면적(面積)·체적(體積)·평방(平方)·입방(立方)·약분(約分)·통분(通分)’ 등의 수학 분야의 어휘들, ‘지구(地球)·경선(經線)·위선(緯線)·열대(熱帶)·냉대(冷帶)·온대(溫帶)’ 등의 지리 분야의 어휘들을 이 책들을 통해 선보였다. 또 한 명의 이탈리아 예수회 수사인 줄리오 알레니(Giulio Alleni, 1582~1649)는 《서학범(西學凡)》과 《직방외기(職方外紀)》를 지어 서양의 종교와 철학, 자연과학을 소개하면서 ‘원죄(原罪)·구세주(救世主)·조물주(造物主)·공법(公法)·문과(文科)·이과(理科)·지구(地球)·대서양(大西洋)·열대(熱帶)’ 등의 어휘를 중국에 소개하였다.

1757년 옹정제가 전례(典禮) 문제 등에서 비롯된 마찰을 계기로 기독교 선교 활동을 금지시키고 모든 외국인들의 활동 범위를 광저우로 제한하였으며, 뒤이어 1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의 해산을 선포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중·서 간의 언어 접촉은道光 44년(1844년)

금교령의 해제를 전후로 재개되었다. 이 ‘백년금교’ 이후 중국에 입국하여 선교 활동을 펼친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의 신교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의 학문적 수준은 이전의 예수회 선교사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번역과 저술 작업을 통해 새로운 번역어들이 중국에 소개될 수 있었다.

1807년에 입국한 영국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의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은 1808년부터 《성경》의 번역을 시작하여 1813년에는 신약을, 1819년에는 구약을 번역하였고, 1823년에는 《신천성서(神天聖書)》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중국어 《성경》을 완역, 출간하였다. 모리슨이 《신천성서》에서 확정한 ‘상제(上帝) · 전지(全知) · 전능(全能) · 삼위일체(三位一體) · 원죄(原罪) · 창세(創世) · 말세(末世) · 천국(天國) · 교회(教會) · 은총(恩寵)’ 등의 기독교 용어들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용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모리슨은 또 《화영자전(華英字典)》(1815~1823)을 편찬하여 근대 번역어를 수집,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한편 브리지먼(Elijah Bridgman, 1801~1861) 등이 편역한 《오문월보(澳門月報)》와 《동서양고매월총기전(東西洋考每月統記傳)》은 중국인들이 서양의 소식을 접하는 중요한 창구였을 뿐 아니라 ‘국회(國會) · 출구(出口) · 입구(入口) · 유대인(猶太人) · 현미경(顯微鏡) · 신문지(新聞紙) · 문예부흥(文藝復興)’ 등의 근대 번역어를 소개하는 통로 역할도 담당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는 경세과로 불리는 중국 학자들이 직접 서양의 지리와 정치, 사회를 소개한 책들을 다투어 출간하기 시작한다. 임칙서(林則徐, 1785~1850)의 《사주지(四洲志)》(?1841), 위원(魏源, 1794~1857)의 《해국도지(海國圖志)》(1844), 서계여(徐繼畬, 1795~1873)의 《영환지략(瀛環志略)》(1848~1849)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수집 가능한 서양과 관련된 자료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국도지》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學校) · 신문(新聞) · 무역(貿易) · 교역(交易) · 문학(文學) · 법률(法律) · 화차(火車) · 공사

(公司)·국회(國會)’ 등의 근대 어휘들이 이 저서를 통해 중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또 이 무렵에는 베이징에 세워진 경사동문관번역처(京師同文館翻譯處)와 경사대학당번역국(京師大學堂編譯局), 상하이에 세워진 강남기계제조국번역관(江南機器製造局翻譯館) 등 정부에서 주도한 번역 기관, 묵해서관(墨海書館)·광학회(廣學會) 등 서양 선교사들이 주관한 번역 출판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양의 책들을 출간하였다. ‘수학(數學)·방정(方程)·식물학(植物學)·의원(醫院)·공기(空氣)·대수(代數)·미분(微分)·적분(積分)·상수(常數)·화학(化學)’ 등의 번역 어휘들이 이 책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청일 전쟁(1894)을 전후로 근대 번역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엄복(嚴復 1853~1921)·마건충(馬建忠 1845~1900)·마군무(馬君武 1881~1940) 등 서양의 언어와 학문에 정통한 일군의 학자들이 서양서들을 직접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天演論)》,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法意)》, 스미스의 《국부론(原富)》, 밀의 《자유론(自由論)》 등 많은 고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엄복의 공은 특히 컸다. ‘우생열패(優生劣敗)·적자생존(適者生存)’ 등 아직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번역어도 있지만, 엄복이 창안한 많은 번역어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번역어들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천연(天演)’은 ‘진화(進化)’로, ‘모재(母財)’는 ‘자본(資本)’으로, ‘군학(群學)’은 ‘사회학(社會學)’으로, ‘격치학(格致學)’은 ‘자연과학(自然科學)’으로, ‘리학(理學)’은 ‘철학(哲學)’으로 대체되었다.

2.2. 일본의 근대 번역어와 중·일의 언어 교류

근대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에도 시대 이후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의 근대 어휘들은 상당수가 중국어로 유입되었고, 일본 역시 번역의 과정에서 중국의 번

역어들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였다.

일본과 서양의 접촉은 포르투갈인이 우연히 규슈 남단의 섬에 표착한 1543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도 시대를 지배했던 도쿠가와 막부는 초기에 서양에 대해 개방 정책을 펼치다가,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자 1630년대에 기독교 금지령의 시행과 함께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하고 엄격한 쇄국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유일하게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던 네덜란드인과 중국인에게만 나가사키(長崎) 항구 안에 있는 데지마(出島)라는 부채꼴 모양의 작은 인공섬에서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하였다. 데지마에는 교역품과 함께 서양의 과학 기술 서적들이 수입되었다. 에도 시대 중기 이후 일본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상인층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 보급된 서양의 과학 기술 관련 서적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양의 의학과 과학 지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문 분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1774년 일본인 의사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 등이 네덜란드어로 된 해부학 책을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제목으로 번역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된 네덜란드 문헌들을 통한 서양 학술 연구를 ‘난학(蘭學)’이라고 부른다. ‘난학’은 ‘네덜란드학’이라는 의미로,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홀란드]를 오란다(阿蘭陀)라고 불렀다. 막부가 있던 에도의 난학자들이 나가사키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화시킨 난학의 핵심은 번역이었다. 난학자들은 네덜란드어로 소개된 유럽의 개념들을 일본어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고, 이 일은 메이지 유신 뒤 유럽 문화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훨씬 더 커다란 규모의 번역 사업으로 확장됐다. 이들은 네덜란드어의 한 단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해, 그 단어의 어원과 변천 과정, 당시의 쓰임새 등 전 역사를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한다고 판단된 한자어를 골라내기 위해 고대 중국 문헌을 뒤적이거나 한자를 조립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기치 아래 막부 말기 양학의 중심은 난학에서

영학으로 바뀌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래로 양학은 최전성기를 맞아 무수한 번역어들이 생겨났다. 막부 말기에 이미 한 달이면 수천 권씩의 서양서가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대체로 고급스러운 개념어들을 이루고 고유어가 기초 어휘를 이루고 있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도 간고(漢語)가 대체로 개념어들이라면 와고(和語)는 대체로 기초 어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양의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기 위해 난학자들이 와고가 아니라 간고를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메이지 시대의 번역 열풍은 초기의 의학에서 화학·물리학·천문학·군사학 등을 거쳐 철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었다.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 유학생이자 ‘근대 일본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시 아마네(西周, 1827~1897)가 만든 번역어 ‘철학(哲學, philosophy)’의 예를 통해 근대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니시 아마네는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난학에 참여하여 쓰다 마미치(津田眞道)와 함께 1862년부터 1865년까지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쓰다 마미치(津田眞道)·모리 아리노리(森有禮) 등과 함께 ‘문명개화(文明開化)’를 기치로 내건 메이로쿠샤(明六社)의 일원으로 철학·심리학·논리학 등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 니시 아마네는 네덜란드에 유학하기 직전 도쿄 대학교의 전신인 가이세이쇼(開成所)에서 철학 강의를 하였는데, 이때 가르친 과목을 ‘希哲學(기테쓰가쿠)’라고 불렀다. ‘希哲學’은 송(宋)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통서(通書)》에 나오는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성인은 하늘을 바라고, 현인은 성인을 바라며, 사인은 현인을 바라다.)’에서 암시를 얻은 말이다. ‘Philosophia’가 ‘希賢’의 정신과 통한다고 여겨 처음에는 이를 ‘希賢學’으로 옮겼다가, ‘賢’이 지나치게 유가의 색채가 짙다고 하여 결국 ‘賢’을 ‘哲’로 바꾼 ‘希哲學’이 된 것이다. 니시 아마네는 이때의 강의를 토대로 1874년에 출판한 《백일신론(百一新論)》

에서 '希哲學' 대신에 '希'를 생략한 '哲學(테쓰가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哲學'이란 번역어는 이후에 중국어로 수입되었다. 이 번역어가 사용된 최초의 중국 문헌은 1894년에 출간된 황경징(黃慶澄)의 《동유일기(東遊日記)》이다. 이전에 출간된 위원의 《해국도지》에서는 'philosophy'를 음역한 '斐祿所費亞'가 대신 사용되었다.

'哲學'의 예가 보여주듯이, 에도 시대 이후 난학자들이 만들어 낸 번역어들과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어 어휘들은 상당수가 한자를 매개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아편 전쟁의 패배(1840~1842)와 영·불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1860) 이후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증되던 위기의식은 '갑오국치'로 표현되는 청일 전쟁의 패배와 무술변법(1898)의 실패로 극에 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일본에 유학하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배웠고, 일본어 서적에 대한 대규모의 중역(中譯)이 이루어졌다. 1896년부터 1911년 사이에 958권의 일본어 서적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1905년과 1906년에 일본에 유학한 중국인 학생은 이미 8천 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는 훗날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손문(孫文)·노신(魯迅)·주작인(周作人)·곽말약(郭末若)·왕국유(王國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일본 유학과 일본어 서적의 중역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근대 번역어들이 중국어로 유입되는 전기가 되었다. 청일 전쟁 이전부터 이미 일부 일본산 번역어들이 중국어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본격적인 유입은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한자를 매개로 하는 공동 문어를 사용했던 동아시아에서 메이지 시대를 전후로 어휘 생산의 주체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것이다. 고대 중국어의 어휘를 그대로 채용하였거나 한자 형태소를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이 어휘들은 큰 마찰이나 거부감이 없이 중국어로 쉽게 유입될 수 있었다.

일본이 근대 번역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에서 이루어진 번역어들을 참고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전통은 명 말 예수

회 선교사들이 번역한 번역서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령,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가 번역한 《기하원본》은 출간 직후 일본에 전해져 1630년에 이미 금서로 지정되고, 1720년에 이르러 공식 해금되었다. 19세기 이후 중국에서 출간된 주요 번역서들도 곧바로 일본에 소개되었다. 위원의 《해국도지》(1844)는 1850년과 1854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서계여의 《영환지략》(1848~1849)은 1859년과 1861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었을 뿐 아니라 1874년에 일본어로 재번역되기도 하였다. 1836년에 출간된 헨리 휘턴(Henry Wheaton)의 《국제법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 1827~1916)이 1864년 번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은 메이지 유신 직전에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근대적 법률 어휘 및 정치 어휘의 형성에 기여했다. 모리슨이 근대 번역어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화영사전》(1815~1823) 역시 곧 바로 일본에 전해졌다. 이와 같이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2.3. 근대 번역어의 조어 방법

차용어를 수용할 때 음역과 의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중국어 차용어에서도 후한과 위·진·남북조 시기에 산스크리트어를 대량으로 차용할 때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차용어를 받아들일 때 음역보다는 의역을 선호한다.

16세기부터 사용되었던 ‘opium’의 음역 ‘鴉片’, 1815년 모리슨(Morrison)의 《Dictionary》에 등장하는 ‘coffee’의 음역 ‘咖啡’ 등이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역한 번역어가 살아남았다. ‘沙發(sofa) · 的士(taxi) · 黑客(hacker) · 雪茄(cigar) · 咖喱(curry) · 卡通(cartoon) · 卡(card) · 泵(pump)’ 등도 음역을 통해 중국어에 유입된 예외적인 차용어들이다. ‘democracy’가 ‘德謨克拉西’에서 ‘民主’로, ‘science’

가 ‘賽因斯’에서 ‘科學’으로 각각 어휘 대체의 과정을 겪은 것도 의역에 대한 선호 때문이다. 음역 어휘를 의역 어휘로 교체하는 것이 중국어 차용어의 큰 추세이지만, 한편 그 역의 과정도 존재한다. ‘logic’은 처음 엄복에 의해 ‘名學’으로 번역되었으나 뒤에 ‘論理學 → 理則學 → 邏輯’ 등의 변화 과정을 거쳐 결국 음역인 ‘邏輯’이 살아남았다. ‘opium’(아편)의 경우에도 16세기부터 존재했던 음역 ‘鴉片’은 19세기에 만들어진 ‘洋烟’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소의 총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문헌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수십만 개에 달하는 어휘를 보유하고 있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고유한 형태소의 수는 수천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의 《설문해자》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수록된 한자의 총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수는 5,000자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나라에서 한나라 초엽까지 거의 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문헌들을 모아 놓은 《십삼경(十三經)》에 사용된 한자의 총수가 6,500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1,000자를 알면 《십삼경》에 사용된 한자의 88.53%를, 2,000자를 알면 95.59%를, 3,000자를 알면 98.24%를 각각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에도 주요 한자의 사용 빈도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어, 1,000자를 알면 현대의 각종 문헌에 사용된 한자의 91.37%를, 2,000자를 알면 98.07%를, 3,000자를 알면 99.63%를 각각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상용되는 한자와 형태소의 총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음역보다 의역을 선호하는 차용어 수용 양상은 과도한 형태소의 증가에 수반되는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처럼 오랜 문헌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대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언어의 경우에는 음역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형태소들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근대 번역어들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의역에 대한 선호는 절대적이어서 두 한자를 전통적인 중국어 조어법에 따라 결합한 합성어들이 근대 번역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직선·곡선·미분·적분·원죄·문과·이과·지구·열대·신문·무역·교역·진구·출구·법률·화차·공사·국회·개념·공간·시간·관념·귀납·연역·명제·이성·추상·구체·현상’ 등 많은 번역어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번역어들을 구성하는 두 형태소는 병렬 관계, 수식 관계, 동목 관계 등을 이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중국어 조어법과 일치한다. ‘조물주·구세주·대서양·현미경·천리경·신문지’ 등 일부 3음절어, ‘적자생존·문예부흥’ 등 일부 4음절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2음절어인 점도 전통적인 중국어 어휘와 같다.

서양의 개념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전 중국어의 어휘 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예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교육’(教育)은 “得天下英才而教育之(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다. 《맹자(孟子)》·진심(盡心))”에서 사용된 표현이었으나, ‘educatio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채택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또 ‘문화’(文化)는 “凡武之興, 爲不服也. 文化不改, 然後加誅(무가 흥성하는 까닭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으로 교화시켜도 바뀌지 않은 뒤에 이들을 처벌하였다. 《설원(說苑)》·지무(指武))”에서, ‘혁명’(革命)은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탕과 무왕은 천명을 바꾸어 하늘을 따르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역(易)》·혁괘(革卦))”에서 사용된 표현이었으나, ‘culture’와 ‘revolutio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각 채택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의무(義務)·권리(權利)·허무(虛無)·연역(演繹)·선천(先天)·후천(後天)·이성(理性)·공간(空間)·구체(具體)·경제(經濟)·기계(機械)·사회(社會)·노동(勞動)·동지(同志)·문명(文明)·민주(民主)·보험(保險)’ 등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중국어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근대 번역어의 생산자들은 대체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창신(創新)보다는 옛것을 존중하는 법고(法古)의 전통을 따랐다. 고전 문헌들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어휘들을 되살려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번역어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도 고대 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조어 원칙을 지켰다. 이런 노력은 근대 번역어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동력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3. 번역과 근대 중국어의 성립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한자와 동아시아 공동 문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근대 번역어라는 새로운 어휘 체계를 형성하였다. 근대 번역어는 중국어 어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 활동과 관련된 핵심 어휘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 번역어의 생산과 유통은 중국어 어휘 체계를 혁신시켰고, 중국어 어휘 체계의 혁신은 중국어 근대화로 이어졌다. 어휘는 언어라는 집을 이루는 벽돌이다. 중국어는 근대 번역어를 재료로 삼아 낡은 집을 허물고 근대어라는 새 집을 준공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중국 근대어의 탄생이 근대 번역어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의 중국어는 두 차례의 아편 전쟁(제1 차 아편 전쟁은 1840~1842년, 제2 차 아편 전쟁은 1856~1860년)이 벌어지던 19세기 중반의 중국어와는 크게 다르다. 당시 중국의 공식적인 문어는 문언(文言)이었고, 백화(白話)와 백화로 쓰인 글들은 언어의 위계질서에서 여전히 낮은 지위를 누렸다. 20세기 초에 진행된 동아시아 공동 문어의 해체로 민족어 시대가 개막되고 동시에 언문일치 시대가 도래하였고, “나의 손은 나의 입을 쓴다(我手寫我口).”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었던 20세기 초의 백화문 운동을 거치면서 공식적인 문어는 백화로 대체되었다. 당시에도 베이징말을 기초로 형성된 표준어인 관화(官話)가 있었지만 현재의 중국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話) 보급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20세기 중반 이후와 비교하면 그 세력은 미약하였고 지위도 불안하였다. 중국어를 표기하는 한자의 자형도 1958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간화자와 크게 달랐을 뿐 아니라 중국 최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알파벳 등 다른 문자를 도입하여 중국어를 표기하자는 주장이 심각하게 거론될 정도로 중국어를 표기하는 유일한 문자로서의 한자의 위상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심지어 중국어를 폐기하고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에스페란토(Esperanto)를 대신 사용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이렇듯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어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근대 번역어의 생산과 유통은 다른 근대 중국의 언어 개혁 운동과 어우러져 중국어 자체의 혁신으로 이어졌다. 근대는 경전이 없는, 경전을 부정하는 시대이다. 경전의 권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소수 엘리트층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공동 문어는 근대라는 시공간과 양립하기 어렵다. 공동 문어가 해체되고 그 자리를 민족어로서의 동시대 중국어를 기록하는 백화가 차지하면서 언문일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공동 문어를 버리고 정치 중심지의 구어를 표준어로 삼아 이를 대중 교육을 통해 보급하여 언어 통일과 언문일치를 이룩하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들이 시행하는 공통된 언어 정책이다. 중국의 보통화 보급 정책 역시 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 부국강병의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중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해야 하고, 국민 계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의 모색이었다.

이러한 근대 중국의 언어 개혁 운동 속에서 진행된 근대 번역어의 생산과 유통은 중국어 어휘 체계를 혁신시켰고, 중국어 어휘 체계의 혁신은 중국어 근대화로 이어졌다. 근대 중국의 어휘 체계의 혁신과 언어 개혁 운동은 중국을 보편 제국에서 민족 국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추진되었고, 번역어를 통한 어휘 체계의 혁신과 언어 개혁 운동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국민 국가의 언어로서의 ‘근대 중국어’의 탄생이었다.

참고 문헌

- 양세욱(2006), 차용어와 현대 중국어 어휘 체계의 다원성, 《중국문학》 48, 한국중국어문학회.
- 양세욱(2009), 근대 번역어와 중국어 어휘 체계의 혁신, 《코기토》 6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양세욱(2011), 근대 중국의 언어 개혁 운동과 내셔널리즘, 《중국언어연구》 37, 한국중국어학회.
- 최경옥(2005),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살림.
- 史有爲(2004), 《外來詞-異文化的使者》,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馮天瑜(2004), 《新語探源- 中西日文化互動與近代漢字述語生成》, 北京: 中華書局.
- Masini, Federico(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JCL Monograph 6. [이정재 역(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서울: 소명]